동물들 살맛 나겠네 광주 우치동물원 관람객 볼만 하겠네

여름철 다양한 보양식 준비

꿀·요구르트 등 하루 605kg

습하고 더운 장마철, 동물원의 동물들도 지치고 힘들긴 마찬가지다.

사육사들은 여름철 동물들의 활동량도 줄고 기진맥진하기 쉽기 때문에 지친 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보양식을 준비한다. '살맛 난다'는 말이 괜한 소리는 아니다.

광주우치동물원으로부터 특별한 보양식단을 들어봤다.

과일·꽃가루·꽃에서 나오는 꿀 등을 먹어 과일박쥐라는 이름이 붙여진 과일박쥐의 별미는 꿀. 파충류사에 사는 50여 마리의 과일박쥐는 하루 한 차례씩 꿀이 발린 사과 등을 먹는 재미에 산다. 꿀 속엔 동물에게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듬뿍 들어 있는데, 지친 피로를 푸는데 탁월하다는 것이다.

올해 나이 34세인 수컷 침팬지는 사람처럼 유산균 요구르트를 먹는다.

수줍음이 많은 이 침팬지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에 자주 시달리는데, 소화작용을 돕는 유산균 요구르트를 먹고 나면 관람객들 앞에서 엉덩이 춤을 춘다.

동물의 왕인 사자·호랑이도 여름철이면 만사가 귀찮다는 듯 축 늘어진 배를 드러내고 휴식을 취하는 종이 사자·호랑이가 된다.

이들 동물은 여름철에 덥고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를 먹는다. 기린·무플론·라마 등 초식동물들은 영양가 높은 배합사료를 즐기며, 미어캣은 단백질이 풍부한 밀웜을 잡아 먹는 재미로 산다.

9일 현재 동물원의 보양식은 약 41종. 137종·632마리의 동물들이 먹는 하루 보양식은 약 605kg, 115만 원이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아래 잠시만 머물러도 금세 지치게 되는 무더운 여름. 하지만 동물 가족들은 갖가지 특별 보양식으로 살맛 나는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9월 예산 11억 투입 새 단장

추억·힐링의 문화동물원으로

광주우치동물원이 조만간 추억을 남기고 힐링할 수 있는 문화동물원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기존 동물원은 관람객들이 단순히 동물들만 관람한 뒤 떠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편히 쉬고 이동하면서 추억까지 남기는 다시 찾고 싶은 동물원으로 바뀐다.

우치동물원은 오는 9월 초 예산 11억 2000만 원을 들여 관람로 개선 및 편의시설물 정비, 동물원 전면도색 등 동물원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치동물원은 예산 4억 원을 투입, 교통약자 등 이동 편의를 위해 관람로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한다. 관람객들은 그간 관람로 노후화에 따른 요철현상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었다. 또 노후된 동물사 및 시설물에 대한 전면 도색을 실시, 다시 찾고 싶은 동물원으로 새단장할 계획이다.

우치동물원은 동물원 매표소 입구에 포토존을 설치해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포토존은 각종 동물 조형물과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조형물 등을 설치, 추억을 되살리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동물사 벽화 그리기 사업도 진행된다.

우치동물원은 1억 원을 들여 동물원 입구와 담장·동물사 내부 등 관람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을 기업 벽화 그리기 팀 또는 학생들과 연계, 동물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람객들은 예전보다 편히 관람하면서 쉴 수 있는 추억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개원한 면적 12만 1302㎡의 우치동물원은 137종·632마리의 각종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호남지역 대표적인 동물원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이돌 공연 보자" 줄지은 관람객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서 Mnet '엠카운트다운' 생방송 '광주 피크닉뮤직페스티벌' 공연을 앞두고 팬들이 선착순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인기 아이돌·걸그룹이 출연하는 '광주 피크닉뮤직페스티벌'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6 해짐 19:49 달뜸 00:45 달짐 14:07

U대회 보러가기 좋은 날

구름이 많겠으며 바다 물결이 높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23/31	보 성	구름많음	21/29
목 포	구름많음	22/29	순 천	구름많음	23/30
여 수	구름많음	22/26	영 광	구름많음	23/29
나 주	구름많음	22/31	진 도	구름많음	22/29
완 도	구름많음	22/29	전 주	구름많음	22/30
구 례	구름많음	22/32	군 산	구름많음	21/29
강 진	구름많음	21/29	남 원	구름많음	21/30
해 남	구름많음	22/29	흑산도	구름많음	20/24
장 성	구름많음	21/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	동~남동	1.5~2.5	북동~동	1.5~2.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먼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34	01:17
	21:24	13:57
여수	03:22	09:49
	16:26	22:23

◇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운동	40
빨래	60

◇ 주간 날씨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23/31	23/26	23/26	23/30	22/30	22/30	22/30

16개 원전 용접부위 37년간 검사 오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부품에 대한 검사가 40여 년간 엉뚱하게 진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housing·외함)에 대한 용접부위 검사가 37년여간 잘못 수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검사 오류가 있었던 원전은 한빛 3호기를 제외한 1~6호기와 고리 2~4호기, 한울 1~6호기, 신고리 1, 2호기 등 16개 원전이다. 원안위 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호기에 대한 가동 전 검사 중이 같은 오류를 발견해 보고해올 때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이란 원자로 안에 인출 또는 삽입시켜 원자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에워싸고 있는 원통형태의 외함을 가리킨다. 제어봉의 역할이 핵분열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중대사고와 밀접한 핵심 부품에 대한 검사가 수십 년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기준에 따르면 하우징의 맞대기 용접부위를 검사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곳이 아닌 나사 조임 후 밀봉 용접된 오메가(Ω) 형태의 용접부를 검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그러나 부실하게 검사가 수행돼온 16기 원전의 용접부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안위 측은 "제작 과정에서의 각종 검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결함이 없었고 그동안 운전 과정에서의 누설 기록을 살펴본 바로도 지금까지 누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원전 16기에 대해서는 원전별 차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때 하우징 용접부 외주부위를 전수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비리 낙찰 한전공사 재입찰은 적법"

광주지법 판결

법원이 전산조작 등의 비리로 낙찰자가 결정된 전기공사 입찰을 무효로 보고 재입찰을 한 한전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D사 등 10개 전기업체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D사 등은 전산조작 등에 연루된 공사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업체들로, 한전이 해당 공사에 대한 전면 재입찰을 진행한 데 반발, "입찰 전체를 무효화하는 대신, 선정된 낙찰자를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들에게 낙찰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시스템) 조작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 전체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체 입찰만 배제할 경우 조작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결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입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재입찰은 입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최근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에 연루된 39개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개최, 업체별로 3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의 입찰 참가 기간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보건부, 제4군 감염병 지정

우리나라를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제4군 감염병으로 정식 지정됐다.

메르스가 국내로 유입, 확산해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안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공식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을 말한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을 거친 후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고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연합뉴스

차량 통제 무시한 '무개념 서포터즈'…관리요원 치여 부상

쌍나팔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내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 관리요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운행하다 관리요원을 친 광주시 한 생활체육회 소속 회원이 입건.

○…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모 생활체육회 소속 회원 A(37)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 대학본부 앞길에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보안업체 직원 김모(여·21)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김씨의 발을 치었다는 것.

○…A씨는 "서포터즈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한국 대 핀란드 여자배구 경기가 시작된지 30분 가량 지난 상황에서 도착, 마음이 급했다"면서 경찰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 및 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 상
1. 자동이체 3건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건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첨(경찰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3등 - 아이패드(3명)
* 4등 - 족욕기(10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